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대선주자 출마 제한 등 뇌관 수두룩

새정치 차기 당권 '룰 전쟁' 스타트...도처에 지뢰밭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의원)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대준비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는 '원트랙'과 별도의 경선을 치르는 '투트랙' 등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비롯한 핵심 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1~2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룰의 결정은 미루면 계파 간 이해관계 충돌로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 분과를 통해 이슈별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조기에 논의를 마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대준비위 전제회의도 매주 두 차례씩 열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의 경선으로 뽑는 현행 '투트랙' 분리선거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친노계 윤호중 전대준비위원은 "지도부 선출이 순수 집단지도체제(원트랙)로 갔다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패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투트랙)로 왔

전당대회준비위 첫 회의

비대위원 불출마·당원 범위

난제 많아 계파 충돌 우려

내대 다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규성 부위원장도 "당내 다수 의견이 분리선거, 단일성 체제 쪽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의 전대 불출마 논의와 관련해서는 공개 촉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위원 간 시각차도 일부 감지된다. 최 부위원장은 "출마할 사람이 스스로 물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유지하면 안 된다"면서도 "비대위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사안이니 미리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은 "비대위 출마 당시 비대위원의 당권 도전은 금지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 와서 출마를 반드시 못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선주자의 전대 불출마론, 당원 인정범위, 전대 대의원 선정방식 등의 민감한 과제가 산적해 계파 간 세 대결이 조기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리당원

인정 요건을 가입 6개월 이상으로 할지도 최근 신규 당원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친노와 비노 간의 견해차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실제보다 더 생생한 가보지 않은 정글



김은영의 '그림 생각'

(91) 아프리카



앙리루소 작 '꿈'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것으로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심각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 세계가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보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 한다. 약수만 해도 전염된다 그 무서운 지역에 지원자가 기대이상으로 몰린다는 뉴스를 접하니 우리 젊은 의료진들의 인도주의적 박애정신에 웃기 어렵다.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어서인지 꿈과 신비와 동경의 땅으로 여겨진다. 이국적이면서도 때 묻지 않은 원시적인 풍경과 독특한 아프리카의 예술적 특징은 현대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피카소, 마티스 등 20세기 초 현대 화가들은 아프리카 조각의 조형에서 예술적 매력을 느껴 새로운 조형언어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입체주의, 야수파, 초현실주의 탄생에도 기여했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 앙리 루소(1844~1910)의 작품 '꿈'(1910년 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전형적 이미지인 원시림이다. 원시림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동물들과 자연은 사실 루소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었다

고 한다. 파리의 식물원과 동물원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 그림을 그렸지만 루소의 정글 작품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프리카 정글을 연상할 것 같다.

'꿈'에 표현된 색들을 분석한 한 비평가에 따르면 이 작품 속에는 50가지의 다른 녹색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초록빛 식물 사이에서 먹잇감을 쫓는 야생동물, 사자 또는 호랑이와 싸우는 원주민, 놀고 있는 원숭이 무리, 어슴푸레한 난초, 등불처럼 달려있는 옐로우, 흰 털이 어우러진 정글 풍경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파리 세관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루소는 주말이면 그림을 그렸던 '일요일의 화가'였고 아마추어 화가들을 일컫던 '소박파 화가'이기도 했다. 단조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망에서 루소는 이국적 주제, 아프리카 정글 속으로 도피했을 지도 모르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분리 선출 의견 많아...대선 나갈 사람 당 재건 임무 거처야"

전대준비위원장 김성곤 의원

차기 전당대회 경선 물에 마련하는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2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회계과 및 인사들로 전준위가 구성됨에 따라, 경선 물에 둘러싸고 계파 간의 충돌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일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곤 전준위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전준위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통합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내 의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만들었던 당헌·당규(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일단 논의해야 될 문제다.

-당권·대권 분리 주장도 거세다.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선 나갈 사람이 당을 재건하는 임무를 거처야 한다.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대선 출마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도부 경선 룰 변경 가능성은.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룰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후 전준위 전제회의와, 비대위, 당무위, 중앙위의 인준과 의결 등을 거친다.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등과 관련, '친노 정당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실이다. 차기 총선 공천을 두고 호남과 비호남 진영을 중심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론도 나온다. 하지만, 인위적 배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전준위 로드맵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다음 주에는 전당대회 날짜와 대의원 규모를 확정하고 당헌·당규 분과에서 다룰 의제를 정할 예정이다. 지도부 경선 물은 다음 달 초순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계파별로 위원이 구성됐다. 경선 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계파 전쟁의 축소판이다. 항상 그랬다. 중용의 정신으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승용 의원 최고위원 도전장 "당 대표와 분리 선출때 출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물이 기존 당헌·당규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에는 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이 도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할 최고위원 주자로 주 의원이 나선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1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

에서 "경선 물이 정해지지 않아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면 최고위원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찰시킬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보인 의원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호(비호무현)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다 호남 정치권의 지원이 더해지면 최고위원 경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주 의원은 원만한 의정생활로 호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중도 진영의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강기정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변수라는 지적이다.



않다는 관측이다.

전남의 모 의원은 "호남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주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면 호남 정치권이 밀어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가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걱정 No!

다시마 양식재해보험

보험가입기간 | 매년 10월 ~ 익년 2월

“ 소중하게 키운 다시마 양식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과 수산물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입문의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4119

해양수산부 수협